

[ 항일사적지 ]

# '28명렬사순난지'에서 조기석렬사를 만나다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여 당중앙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퇴역군인사무부는 최근 제 4진의 43명 저명한 항일영웅 및 영웅단체 명부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중공연길구위 서기였던 조기석(1904-1932)렬사의 이름도 들어있다.

"이 소식을 신문에서 보는 순간, 조기석렬사를 비롯한 28명 순난렬사들의 희생을 당과 국가는 결코 잊지 않고 공경해주는구나 싶은 생각에 큰 위안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연길로인뢰봉반 반장 박철원선생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요즘 먹자거리로 변화해지고 유명해진 연길시 발전의 연접로를 따라 북쪽으로 달리다가 실현촌에 이르러면 길서쪽 발 가운데에 낫다란 봉분과 함께 '28명렬사순난지'라고 쓴 화강암 비석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 조기석렬사를 비롯한 항일렬사 28명이 묻혀있습니다." 박철원선생은 해마다 청명과 추석이되면 이곳을 찾는다고 말했다. 연길로인뢰봉반의 주도로 려사들의 영령에 조의를 표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애국주의 혁명교양을 진행해온 세월도 어언 18년 철을 잡는다고 소개했다.

었다." 비석 뒤면에는 조기석을 비롯한 17명의 순난혁명렬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나머지 10여명 려사들의 이름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못하여 올리지 못한 형편이라고 박철원선생은 해석했다. 혁명사업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쳤지만 아직도 어느 한 심산 속에 이름없이 누워있는 려사들이 어디 이들 뿐이겠는가?!

이름이 확인된 려사 명단중에는 유중화와 그의 두 아들인 유태봉, 유태선, 리병필과 그의 두 아들인 리학산, 리학진 등 일가족 부자 이름도 함께 들어있었는데 가족성원들이 항일구국의 길에서 모두 순직하여 안타까움과 경건한 숭모의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연변인민출판사에서 1985년 4월에 출판한 《장백의 투사들 2》의 〈연변항일렬사전〉에 따르면 중공연길구위 서기 조기석렬사는 1904년생인데 '공산주의사상의 온상'으로 불리운 동흥중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어려서부터 반일애국의 뜻을 키웠다. 1926년도에 그는 황포군관학교 교도대에 들어가 군사학을 배웠으며 1928년에 연변에 돌아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 속에 뛰어들었다.

1932년 봄, 중공동만특별위원회에서는 '일본침략자를 몰아내자', '주구를 타도하자', '주구의 식량을 빼앗아 기항을 해결하자'는 투쟁구호를 제기하고 춘황투쟁을 발동하였는데 당의 호소에 항응하여 동만 각지의 농촌들에서는 성세호대하게 주구 청산을 결합한 춘황투쟁에 떨기게 되었다. 조기석은 연길구위 산하의 수백명 농민들을 지도하여 마반산 오암동에서 주구 청산 대회를 열었는데 대회에서 5명 주구의 죄악을 폭로하고 청산하였으므로 대회후 주구와 반동지주의 식량을 빼앗아 빈곤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추수투쟁과 춘황투쟁에서 호된 타격을 받은 일본침략자들은 1932년부터 경찰과 위만군경을 동원하여 동만에서 인민들에 대한 대량적인 토벌과 살육을 감행하였는데 다치는 대로 붙잡아 가두고 학살하였으며 수많은 농촌마을들을 불태워 재더미로 만들었다. 연길구위에서도 춘황투쟁후 주구 가정의 밀고와 더불어 검거공이 일어났는데 일본경찰서와 위만경찰서 적들은 북산촌에 덮쳐들어 회의를 하고 있던 조기석 등 20여명의 동지들을 체포하였다.

일제와 괴뢰군들은 조기석을 비롯



'28명렬사순난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연길로인뢰봉반 반장 박철원선생

없이 잘살고 있고 생활형편이 편인 것은 모두 조기석렬사와 같은 허다한 항일렬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 마실 때 우물 판 이를 잊으면 안되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오늘날 행복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항일렬사들을 잊으면 안됩니다."

박철원선생은 '28명렬사순난지'는 눈물겨운 비장한 항일이야기가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항일애국주의교



"28명렬사순난지' 비석의 높이는 3.2미터인데 이는 참사가 발생한 1932년도를 의미하며 비석 테두리 앞면과 뒤면에 각각 10송이, 양 옆면에 각각 4송이의 진달래꽃을 새겼는데 이는 28명의 려사를 상징함과 동시에 조기석렬사가 사망 당시 28세였음도 상징합니다. 대리석 밑받침은 인민대중의 옹호를 표시하고 비석머리의 화불 설계는 춘황추수투쟁의 거센 불길의 뜻을 뜻합니다." 박철원선생은 매년 이곳을 찾는 사람들 앞에서 우선 비석에 깃든 이야기부터 소개한다.

'28명렬사순난지' 비석은 중공연길시위와 연길시인민정부에서 지난 1999년 11월 7일에 세웠는데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1932년 봄 중공동만특위 선전부장 겸 중공연길구위 서기인 조기석은 공산당원과 광범한 군중들을 조직령도하여 춘황투쟁을 펼쳤는데 일제침략자와 봉건세력을 유력하게 타격하였다. 1932년 4월 27일 조기석 등 28명렬사들은 이곳에서 영웅하게 순직하

1930년 5월, 연변 각지 인민들은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성세호대한 '붉은 5월 투쟁'을 진행하였는데 조기석은 군중들을 령솔하여 지주와 악패 한간들을 습격처형하고 창고의 식량과 재물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930년 여름, 조기석은 영광스럽게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고 1931년에 중공연길구위 서기로 임명되었다. 조기석은 개인의 안위도 돌보지 않고 농들의 피비린 탄압과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체포와 감금도 넘두에 두지 않은 채 농촌에 내려가 기증당지부를 조직하고 광범한 군중들을 반일투쟁의 령과 속에 뛰어들게 하였다. 혁명의 거센 불길에 질겁한 일제와 그 주구들은 미친 듯한 대검거를 실행하면서 수많은 혁명자들을 체포하여 연길감옥에 구금하였는데 중공동만특별위원회에서는 연길감옥에 구금된 혁명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한 간고한 사업을 연길구위에 하달했고 조기석은 옥중 동지들의 탈출을 밖에서도 도와서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 항일지사들을 체포하고 갖은 고문과 회유를 하였지만 실패하게 되자 이곳에 끌고 와서 초가집에 몰아넣은 후 기관총 사격을 하고 불을 질러 살해하였다. 이튿날 농들이 사라지자 군중들은 재더미를 헤쳐가며 혁명렬사들의 유골을 모아 합장하였는데 이곳이 바로 '28명렬사순난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행복된 생활이 어떻게 왔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불리 잘 먹고 근심

양 장소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이 조기석렬사가 국가의 항일명장 명부에 이름을 올린 것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중국 침략 만행의 철같은 증거인 '28명렬사순난지'에 중시를 돌리고 잘 건설하며 항일에 몸 바쳐 싸운 혁명렬사들의 빛나는 영웅업적을 길이길이 전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근 김파 기자



## 김춘섭, 항일렬사들을 위해 기념비 세우

왕청현은 예로부터 '연변의 정강산'이라 불리우고 있는바 항일전쟁 시기에 이곳은 중공동만특위 소재지로 100여차례의 항일전투가 발생했다. 이곳에는 항일렬사 묘지와 항일련군 유적지 177곳이 있으며 600명이 넘는 항일장병들이 영면해 있다.

오늘날 왕청의 여러 유적지는 소중한 애국주의교양 자원이 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올해 79세인 퇴직간부 김춘섭의 20년간의 노력과 헌신이 숨배여 있다.

2005년, 김춘섭은 왕청현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직에서 물러나 차세대사업위원회 주임을 맡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는 동북항일련군의 사적과 왕청에서 일어난 항일전쟁 이야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전념했다.

동장영렬사릉원을 시작으로 김춘섭의 주도로 118개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왕청의 여러 곳에 위치해있다. 그중에는 비발리에 정보를 전달하다가 불행히도 일본군에 체포되어 영웅하게 희생된, 당시 12세였던 꼬마렬사 김금녀도 있고 량심의 가책을 받아 비록 일본군이었으나 10만발의 총알을 항일유격대에 기증하고 결국 자살한 국제주의자 이다조오도

있다. 백여개의 영웅기념비는 단지 돌과 세멘트로 쌓아올린 건조물이 아니라 위대한 항일전쟁정신의 매개체이다. 기념비에 씌어진 한명한명의 이름 뒤에는 국가와 민족을 멸망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운 려사가 있으며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있다.

/인민넷

## 력사에 길이 남을 소왕청방어전투

■ 리함

1933년 초, 일제침략자들은 일본군, 경찰, 위만군, 자위단 등 6,000여명의 병력에 비행기, 대포까지 투입하여 동만의 여러 항일근거지에 대한 제 1차 대'토벌'을 감행하였다. 토벌의 중심은 왕청현 소왕청근거지였다. 2월과 3월에 적들은 소왕청근거지와 그 일대에 덮쳐들었다가 슬한 주검을 남기고 격퇴당했다.

소왕청항일유격근거지는 중공동만특위와 왕청현위의 소재지로서 지금의 왕청 현성에서 동으로 13키로메터쯤 떨어진 소왕청골안의 뽕죽산 등쪽지대에 자리잡고 있었다. 서북쪽에 뽕죽산이 있고 서남쪽에 북마반산, 동남쪽과 동북쪽엔 또 마반산과 금화령이 솟아올랐는데 2개의 골짜기가 서남에서 동북쪽으로 뻗었다. 게다가 현성인 배초구에서 100리쯤 떨어진 편벽한 산구여서 지리적 환경이 매우 좋았다.

4월에 집어들어 5구 석현에서 일본군과 위만군의 지휘관들이 소왕청근거지를 토벌하고 유격대를 소멸하기 위한 군사회의를 한다는 정보가 근거지에 전해졌다. 현위 서기 리용규, 현위 군사부장 김명균, 유격대 대대장 량성룡 등은 함께 회의를 열고 방어책을 강구하였다.

회의에서는 적들의 병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제하에서 정면으로 막아나서는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더 깊은 산으로 피하는가 하는 두가지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근거지 안에 비록 1중대와 2중대의 60여명 유격대원 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유격대의 사기가 높은 데다가 유리한 자연지리조건을 갖고 있어 기동명활한 유격전술을 쓴다면 적들을 얼마든지 타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회의에서는 정면공격 주장을 통과하고 군사부장 김명균이 직접 한계 중대를 이끌고 가야하여 가서 결사대를 무어 회의의 장소를 뽕비박산내도록 결정하였다.

김명균은 소속 중대를 지휘하여 적의 지휘관들의 회의 장소에 은밀히 숨어들었다. 결사대는 갑작스럽게 보초군을 재껴버리고 회의 장소로 돌입하였다. 한 대원이 선창 들어가서 짙짙 말라고 소리치자 지휘관 농들은 웬 영문인지를 몰라 여러 동침해하였다. 찰나, 그중 한 농의 총질로 회의 장소에 뛰어든 대원이 불행히 희생되었다.

적들의 반격에 결사대는 급급히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하루종일 적들을 달고 다니며 죽자다가 영창동에 가서 여러 날 피어난 전투를 벌여왔다. 나중에 탄알이 떨어지고 수류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결사대가 최후를 각오할 때 중대장 장룡산이 후원군을 데리고 와서 적들의 포위를 뚫었다.

4월 17일 아침, 1,500여명의 적'토벌대'가 몰밀듯이 소왕청근거지에 덮쳐들었다. 전투지휘부는 소왕청골짜기 어구와 오른쪽 자피겨우 방향, 왼쪽 대왕청골이 환히 보이는 가파로운 고지에 설치되었다. 여러 망원초의 연기와 수기 신호를 통하여 지휘부는 적들이 왕청거리에 쏟아나왔다는 것을 대변에 알아내고 뽕죽산과 자피겨우, 마반산에서 매복전을 펼치였다.

오전 10시경에 적들은 전연방어진지인 뽕죽산에 덮쳐왔다. 대기하고 있던 1중대 1소대의 대원들은 적들이 30~40미터 가까이 접근했을 때 일시에 사격하여 적의 선두부대 20여명을 쓸어놓았다. 적들은 산 밑 강가로 퇴각하였다가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어 뽕죽산 남쪽고지와 서쪽으로 쫓겨 올라왔다. 유격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적들이 아군 진지에서 서성거릴 때 제 2방어선의 유격대원들과

반일자위대들이 명중탄을 퍼부었다. 일본수비대 10여명이 또 쓰러졌다. 반일자위대는 포복전진으로 올라오는 농들에게 돌벼락을 안기였다. 적들은 황급히 왕청 쪽으로 공무니를 뺐다.

이튿날 아침 적'토벌대' 1,000여명이 대포의 엄호하에 소왕청골짜기와 자피겨우, 대왕청골짜기 3면으로 일시에 쳐들어왔다. 대왕청골짜기의 적들은 기병과 합세하여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적들이 기고만장하여 마촌 쪽으로 뽕죽산에 올라보니 진지는 텅텅 비어 있었다.

이곳을 지켜선 1중대 1소대는 진지를 에둘러 마촌과 서대과 사이의 고개를 넘어가 마촌을 바라고 달려드는 일본수비대 한계 중대를 기습하여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왕청골짜기로 달려든 적들도 마반산에서 2중대의 매복습격을 받아 쩔쩔매다가 왕청 쪽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이날 점심에 적들은 비행기와 대포, 기관총의 엄호하에 마촌을 거쳐 아군 지휘부가 있는 715고지를 맹공격하였다. 1중대 2소대와 3소대는 산비탈 전초 속에서 적의 거듭되는 공격을 수차 격퇴하였다. 밤에 적들은 대방자 쪽으로 물러가야의 속영을 하였다. 지휘부에서는 야간습격조를 파견하여 재차 무리죽음을 안기게 하였다.

피어린 방어전은 3일째 계속되었다. 근거지의 군민들 저저마다 한사람같이 근거지 방어전에 떨쳐나섰다. 후방을 지켜선 녀성적들은 불비 속을 헤치면서 물과 밥을 진지에 날라갔고 아동단원들은 근거지를 지켜선 유격대 아저씨들에게 항일가요를 불러주며 그들의 투지를 고무하여주었다. 한데서 19일 아침 일본군과 위만군의 연합'토벌대' 수백명이 왕청을 떠나 대감자 북고령을 에둘러 소왕청골짜기에 기여들었다가 일본군 기병대 20여명이 유격대 2중대 1소대에 의해 졸지에 녹아났다. 2중대 2소대는 산기슭에 매복해있다가 일본군 보병중대를 담자했다. 반일자위대는 증원을 서둘러 위만군 지휘관 몇명을 거꾸르르렸다. 일본군 장교도 군도를 빼어들고 '도뜨끼끼'를 부르다가 역시 거꾸러졌다. 일본군과 위만군은 재돌격을 시도했으나 수류탄이 연해연방 적진에 날아갔다. 날이 어두워지자 적들은 청구자령 방향으로 공무니를 뺐다.

이날 적들은 자피겨우 쪽으로 우회하여 마촌에 기여들었다. 다른 날 '토벌대'가 또 마촌에 접근하고 있었다. 1중대 3소대는 이농들에게 한바탕 총질하고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먼저 마촌에 기여든 농들은 선손을 쓴다며 뒤미처 접어드는 제편 부대에 불질하였다. 진짜 개싸움이 벌어졌다. 적들이 진상을 알았을 때는 이미 두시간이나 개싸움을 한 뒤였다.

매칠후 왕청 주둔 일제수비대 100여명이 앙강음을 한다며 마촌을 바리개기만히 기여들다가 뽕죽산을 지켜선 초소의 몇명 반일자위대원에게 발각되었다. 사정이 급했다. 근거지 본부에 알릴 시간이 없었다. 반일자위대원들은 선손을 써서 불의의 사격을 가했다. 열이 나간 일제수비대는 우리측 무력을 헤아리지 못하고 급급히 줄행랑을 놓았다.

김명균, 량성룡 등이 지휘한 소왕청방어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적'토벌대' 1,500여명은 산등성이와 골짜기마다에서 갈갈질 팡 사흘을 허둥대다가 400여명의 주검을 내고 끝내 패주하고 말았다. 소왕청근거지를 비롯한 연변 여러 근거지들에 대한 적들의 제 1차 대'토벌'은 수치스런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